朝鮮日報
朝鮮日報社

四回臨時會開會
白凡先生逝去에默念

지난 六月二十日 閉會以來 十日間의 休會中 金若水 副議長을 비롯하여 議員의 拘束事件으로 … 國會는 마침내 昨一日 四回臨時國會를 開會하였다 이날은 午前十一時 開式하고 同四十五分에 式을 … 李大統領을 비롯하여 政府各部長官 및 美國大使 「무쵸」氏 …

申議長式辭

三權合作이重大
李大統領開會式에致辭

李大統領은 一日第四回臨時國會開會式에 致辭를 하였는데 먼저 故金九氏의 殺害事件에 言及하여 …

反民의名單
政府에早速提出

附議案件展望

(寫眞=李大統領)

金九氏의遭難 詳報는追後發表
甕津에强力軍隊派遣
李大統領外國記者團에聲明

李大統領은 國會議員逮捕事件 및 金九先生被殺事件등 最近에 이러난 重大事件에 비추어 「서로 關連性이 있는듯한 事件들로 韓國內에 어떤 危險이 있는듯이 … 」 卅日下午 外國記者에게 別項과같은 聲明을 發表하였다 以下는 駐서울AP特派員이 提供한 同聲明의 全文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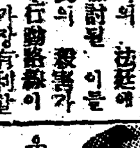
一連의 事件은 … 金九氏殺害事件은 … 共產主義侵略으로부터 …

一億五千萬弗援助案
美下院外委可決
反共規定追加・上院에도上程

【워싱톤一日發UP=共立】美國下院外交委員會는 三十日 一億五千萬弗韓國援助法案을 可決하였다 …

對共鬪爭이있을뿐
下院外委規定에金東成氏談

巴里會議는 蘇聯의勝利
미外相이 辯明



駐韓美軍撤退完了!
美陸軍省聲明書發表

【워싱톤一日發AP合同】美陸軍省은 지난 三十日 韓國駐屯美軍撤退에 關하여 다음과같은 聲明書를 發表하였다

美陸軍省은 『유엔』決議에 依하여 韓國으로부터 美駐屯軍撤退를 完了하였다 따라서 同部隊는 『하와이』及美國으로 撤收하게 될것이다

民主國民黨서 淸黨問題討議

리事務總長訪韓

駐埃及美大使任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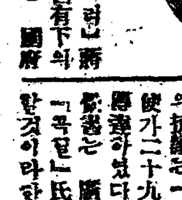
希新內閣就任

美軍撤退를確認
一日公報卅八號로聲明發表

公報卅八號

마案關係國會 一日巴里서再開

美軍撤退에 民主國民黨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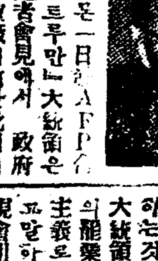


蔣氏、國府와協議次廣東에
美英側의封鎖反對로

美國覺書와類似 英封鎖承認拒否

韓美石油協定 三個月間延長

兩黨政策維持
「트」氏對中策釋明



美株式大暴落
…六月卄八日부터始作…

各分科委員長 運營問題協議

經濟界

先先搬輸入 三割以內로

棉衣價格 引上保留

去來停止

인政府六日還都 和蘭支配서離脫

蘇聯大使通報

歐洲農委에 加入申請手續

學徒의福音

國產最高品 12色

코스모스도화물감
(水彩繪具)

製造者 朴鎭權

窓유리多量入荷
大特賣開始
特賣期間 自六月二十六日 至七月二十六日
高麗硝子株式會社
釜山府東光洞 電話四五七〇番

學生募集
財團法人 東洋工業中學校
一、土木科 機械科 第一學年 第二、三學年 各六〇名式
一、出願期日 自六月二十日 至七月四日
一、試驗期日 七月八日

學生募集
財團法人 明星女子中學校
募集人員 一學年 一二〇名
出願期日 六月二〇日—七月九日
試驗期日 七月十日—十三日
願書用紙代百圓(詳細來問)
서울市鍾路區觀水洞一〇二(前和光敎團) 電話光化門 三二七二番

學生募集
水原三一中學校
◎募集人員 第一學年 一八〇名
◎試驗期日 自七月十八日 至二十日
◎出願期日 七月十六日까지
◎志願用紙 本校交付
電話四一六番

精米所急賣

脫黨聲明書
檀紀四二八二年七月一日

肛門科專門
東亞醫院
서울市乙支路五街一四〇 電東(5)二一六四番

化粧品
大昌洋行

銷夏讀物・夏節의 淸凉書! 國際・威都兩新聞에 連載되던
맥아더 治下의 日本 (全譯) 發賣中
라이프誌 極東特派員 라우러 백著 서울타임스編輯局長 崔永植譯
著者의 東洋關係 著書中에서도 가장 우리의 關心을 끄는 本書는 美國의 占領政策과 敗戰日本의 革命過程의 生態를 科學的으로 客觀的으로 辛辣하게 批判 描寫하여 우리들의 深甚한 注意를 모으게하는 珍書인 同時 널리 世界的 問題의 著作이 된 冊이다 더위에 지칠때도 이 한권은 可히 炎熱을 잊을수 있게한다
서울鍾路 2街● 振替京城2028● 電光1169 ●8433
◆360頁美 冊5 0圓◆ 博文出版社 發行: 博文書館 總販賣

果樹・種蜂・蜂蜜 總販賣
朝鮮蜂蜜商會

災民救濟에喜消息!

住宅은勿論農地養豚도斡旋

서울市에서豪華한計劃

서울시내에는 방공호, 토굴, 천막, 토막등에서 기숙하는 재민이 약五천六백세대 二十여만으로 추산되는바 서울시에서는 이들에게 주택과 농지를 주어 안주시키고자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있다 즉 구체적 계획에 의하면 약五천평 의 ... 으로서 이 ... (里門洞)의 二十五정보 합계 一백二十二만五천평에 三백호의 주택을 신축하야 三백세대를 수용하는 한편 소채재배 양돈 양계를 영위케하기 위하야 매세대에 주택지 三十평 채소재배지 三백五十평 합계 七백五十평을 분배키로 되었으며 三十평 계사(鷄舍) 四十평 돈사(豚舍) 재배지도 분배하기로 되었다 이 계획은 세대에 종자 돼지 두마리 닭五十마리 종자 다수를 분배하기로 되었으며 七월 상순에 착공하야 약 一개월 후에는 공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수용을 개시하리라 한다

奬忠壇收容所廢鎖

서울시에서는 시내 장충단에 있는 전재민수용소를 폐쇄하고 이곳에 있던 전재민은 전재민주택 보광동(普光洞)에 수용하기로 되었다 이 보광동에는 一천四백五十만원의 예산으로 전재민주택 四十동을 건설중에 있는 것으로 七월 말일경에는 완성될것이라고 보이는바 백六十세대를 수용할 계획인것이다

任氏始終否認

다음에는 證人訊問

상공부장관 임영신씨 사건 제一회공판 제三일인 三十일 오후에는 三시경부터 임영신(任永信)씨에 대한 사실심리가 계속되었는데 피고는 어디까지나 대국적 견지에서 [illegible]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다 [illegible] 경제정하였는데 제二회공판은 오는十二、十三양일간에 다음의 十二명에 대한 증인심문이 있을 예정이다

李民鎬(商工部商務局長) 李圭元(前慶北學務局長) 柳漢相(商工部工業局長) 徐珉濠(朝鮮電業社長) 金秀學(商工部次官) 尹潤基 金龍根(商工部鑛務局長) 金炳濂(前總務局長) 金福主 崔鍾周(朝鮮銀行總裁) 尹相九關係 韓彦敎 片東鉉關係 李昇任

海水浴場에 保健列車增發

교통부에서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각해수욕장 수영장에 보건열차를 운전하는 한편 통근통학열차의 혼잡완화를 위하여 작一일부터 八월三十一일까지 각선에 열차를 증발하기로 하였는데 발차시간은 다음과 같다

▲東海線(釜山海雲臺間) 釜山發 海雲臺着 時 分
三○五列車 九·四○ 一○·二五
三○七同 一三·四○ 一四·四○
海雲臺發 釜山着
三○二列車 一二時 一三時
三○四列車 一六·二○ 一七·三○
▲慶州浦項間(每土日曜限) 慶州發 浦項着
三○六列車 九時 一○·一○
浦項發 慶州着
三○五列車 一七·○○ 一七·一○
▲釜山東萊間 釜山發 東萊着
三○三列車 一三時 一三·五○
東萊發 釜山着
三○四列車 一三·四五 一三·五五
▲水仁線 水原發 水仁着
三三三列車 一一·○○ 一三·○○
水仁發、水原着
三三四列車 一四·○○ 一六時 一○分
▲水驪線 水原發 驪州着
三五一列車 [illegible]
▲慶全線 順天發 光州着
一○三列車 六·二○ 九·二○
光州發 順天着
一○四列車 一四·一○ 一七·一○
▲和順線 和順發 福岩着
一○七列車 [illegible]

反民特裁最初의極刑

倭警金悳基에死刑을言渡

三천만민족의 숙원에 도던 민족운동자들을 살해 하기 위한 [illegible]

흑은 부욕시켜 민족의 혼과 민족운동을 말살시키던 국악무도한 전 덕기(金悳基)에 대하여는 기보한바와 같이 지난 六월 三일 김(金)사 과 관계 검찰관으로부터 형을 구형하여 그 과정 연도가 매우 주목되든바 드디어 작一일 서울지방법원 대법정에서 반민자처단 구형 그대로의 사형판결을 내렸다

공판은 오전十一시부터 노(盧鎭卨) 재판장 주심으로 개정되어 이우문 낭독과 아울러 동 二十분 검 먹기에 대한 언도가 있었다 노진설(盧鎭卨)재판장은 피고에 대하여 피고는 十四년간 고등경찰로서 최고직위까지 지내었으며 재직중 수많은 애국자를 검거소탕시켜 민족정신을 말살케한 극악한 자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럼으로 우리의 민족정신을 살리고 수많은 선열의 영웅을 위로하며 외국으로부터 도라오신 애국투사들의 정신을 살리기 위하여 피고인을 반민법 제三조 급제四조 三항 六항 十항을 적용하여 사형에 처한다 고 자못 엄숙한 태도로써 사형언도를 내리었다

반민법 실시 이후 최초의 사형언도를 내린 노(盧鎭卨) 재판장은 언도의 소감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검덕기는 많은 투사를 살상하고 혁명운동을 방해함이 큰 고로 부득이 극형에 처했다 이로서 민족정기를 살리고 반민법이 엄연하게 운영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사형언도를 받고 형무관에 이끌려 나가던 검덕기는 기자의 소감질문에 다만 「아무말할 없다」 하며 형만보고 창백한 얼굴로 재판소내 유치장으로 드러갔다 (사진은 검덕기)

謀略은遺憾

金九先生狙擊事件 憲兵司令部發表

[憲兵司令部一日發表] 경찰당국과 군급경찰이 합동하여 면밀히 그 진상은 조사하여 발표하니 일반국민은 그 모략에 넘어가지 말기 불바란다

(一) 전우(前于) 비서의 진술에 의하면 (二十六일오전十一시반 안두희가 경교장에 도착하였다

(二) 동일 十二시경에 종로위정된다 [illegible] 법인과 김구선생과 담화하시간은 十二시三분간으로 [illegible]

(三) 안두희는 그후 선구위서의 안배로 김구선생 거실에 드러갔는데 계단을 올라갈때 「라디오」의 가조 소리를 들었다 함으로 그 가 오후의 방송시간을 중앙방송국에가서 조사하여 본결과 十二시三十四분이 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四) 경호원 이(李)순 경이 위병소에서 총성을 듣고 동료조순경을 드리 보내고 이순경은 즉시 안三 택一매「카다—」에 매리저있는 서대문경찰서에 달려가서 장(張)사령부입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시간이 경 주임의 진술에 의하면 十二 시五十분이었다고 함으로 범인과 김구선생과 담화 하시간은 十二시三분간으로 추정된다

(五) 그후에 태문에서 [illegible] 계약 二十명은 입송하여가지고 오자마자 [illegible] 장본 정재외위분자 경고장 외입원상 부하와 [illegible]

(六) 사령관이 [illegible] 오후一시 四十五분에 포박된 범인을 [illegible]

民族을 領導하신 柴[illegible] 白凡金九先生은 一般黨首라기보다 全民族의 指導者의 一人이며 全民族이 共同히 抗爭하고 革命의 先鋒으로 [illegible] 政黨黨首로 모시고 [illegible] [illegible]

地域別로 時間給水

서울시수도국에서는 [illegible] 표를 다음과 같이 [illegible] 인하기로 되었다

▲一天列車 [illegible] 二日부터 [illegible] 七月十一日부터 [illegible] 서울大田間各驛 仁川까지는 [illegible] 二日부터 [illegible]

永訣式順과 下棺式節次

故 백범김구선생 장의위원회에서는 오는五일 거행될 영결식과 하관식순서를 一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一、永訣式順序

式場서울運動場 時日五日下午一時 司儀朴允進

1、開式 2、用樂 3、國旗敬禮(一同) 4、愛國歌奉唱(一同) 5、弔樂(陸海軍樂隊) 6、式辭(葬儀委員長吳世昌) 7、略史報告(柳林) 8、弔歌(學生聯合合唱團) 9、焚香(葬儀副委員長趙琬九) 10、獻花(同金奎植) 11、拜禮(一同) 12、弔辭(葬儀副委員長 李承晩大統領 李始榮副統領 金奎植 國際聯合韓國委員團 外國使節團) 13、焚香(喪主金信) 14、默想(一同) 15、弔樂 16、弔曲(서울交響樂團) 閉會

二、下棺式順序

式場孝昌公園 時日五日午後五時 司儀朴允進

1、開式 2、愛國歌奉唱(一同) 3、用樂(陸海軍軍樂隊) 4、焚香 5、獻花(手允榮) 6、祭文朗讀(趙素昂) 7、焚香(喪主金信) 8、弔樂(서울交響樂團) 9、下棺(各團體代表一人式) 10、入土(葬儀委員) 11、總拜(一同) 12、弔歌(學生聯合合唱團) 13、默想(一同) 14、閉式

行列順序 (一部)

고 백범 김구(白凡金九)선생장의위원회에서는 백범선생국민장(國民葬)수행에 있어서 계반절차를 국의 국장(國葬)절차와 우리나라 고래부터의 예식절차를 종합재검토하여 과반발표한 행렬순서를 다음과 같이 일부변경하기로 하였다

一、騎馬警察官六名 二、警察幹部(警監以上十二名) 三、國旗手四名 四、樂隊(陸海軍) 五、前板儀仗兵(國軍) 六、前車儀仗隊(韓國獨立黨青年同志一小隊) 七、靈車(故金九先生의乘用車) 八、陪從 一名 九、靈車後板儀仗隊 十、寫眞前板儀仗隊(韓國獨立黨青年同志一小隊) 十一、寫眞(左右에青年八名) 十二、陪從(無服親) 十三、寫眞後板儀仗隊(韓國獨立黨青年同志一小隊) 十四、樂隊 十五、用歌隊(學生) 十六、葬儀委員長 十七、葬儀副委員長 十八、葬儀委員長代理(二名) 十九、銘旌 二十、靈柩前板護衛(韓國獨立黨青年同志八十名) 二十一、靈柩(左右에青年九名) 二十二、靈柩護衛(韓國獨立黨青年同志八十名) 二十三、主喪內外 二十四、有服親 二十五、無服親 二十六、大統領 二十七、副統領 二十八、國務委員及同志 元老 外國使臣 國會議長 二十九、國會議員 政府 大法院長 各團體代表 各政黨代表 各社會團體代表 各宗敎團體代表 各學校代表(中學以上) 各青年團體代表 各市 道 府 郡團體代表 三十、後板儀仗兵(國軍) 三十一、警察幹部

式과 與禮部員은 靈柩後衛員으로 定함

李副統領弔問

許政氏도세번이나氣絶

이시영(李始榮)부통령(副統領)은 一일 오후二시경 허정(許政)교통부장관의 안내로 경교장(京橋莊)에 교 백범선생의 영(靈)에 분향하였다 그런데 이부통령은 교 백범선생의 부고를 듣자 기절을 하였다한다 이부통령은 수원에 부축을 받아 차에서 나리자 빈소에 드리운 향을 올린 다음 이어 상주 신(信)씨와 더부러 二층 내실로 들어가서 잠시 유가족들과 함께 간담이 있은 후 응접실로 기자들을 만나러 나타났다

노쇠하기 그지없는 몸을 조파에 담으며 『분한 것이 뭐 있소 작고는데는 가슴만 답답하오』 하고 다음과 같은 감상을 말하였다

교 백범 김구선생이 자가신데 대해서는 너무 뜻밖이요 비통해서 말이 안나온다 그분하고 三十년사이에 같은 기관에 있었고 고락이 있었고 깊이지나기도 여러번 하였으니 그분의 보통사람보다는 몸집은 많이 알고 있다 첫째 그분은 국사에 충성하였고 노모에 효성이 지극하며 충효과 상한 분이 목 장의 소제를 十년동안 늘 수그러 했었다 환경이 간난위급이니 집이 가난하면

어진아내를 생각하고 국가가 어지러우면 어진 대신을 생각한다 구사건때에 나도 상해서 윤봉길의사의 홍구사건때에 나도 같이 있었으며 그후 모시고 다니는 그 분의 진실하게 생각하던 것이 생각된다 그분은 오로지 우리 나라의 독립국가를 생각한데 그분도 신이 어찌 그를 몰랐으리오 우리가 세계적인 독립국가 건설에 이 뜻밖의 일에 돌아가셨으니 그럴리 없다 비명횡사 했다 그런데 그분의 간첩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illegible] 참변 一주일전에 나는 만나지 못하고 그는 늘 세상일을 아와 그는 이렇게 생각 이 못했다 이러한 참변을 당한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지금와서 관 머리 붙들고 울려고 해도 했지만 몸이 여의치 못해

拜禮 누님 由

葬委서談話發表

고 백범장의위원회에서는 일반조객의 제한이 있는듯한 오해를 주는 발표가 있었는데 오해말라고 아래와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고 백범 김구선생에 대한 반조객배례에 관하여 六월二十九일 발표에는 각 오가있어 一반의 배례를 제한한듯한 느낌을 주었으나 오해말고 매일오전七시부터 오후九시까지 자유로 배례하여 선생에 대한 갑은추모의 념을 애끼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監에서 애끓는弔詞

장사할도 참서할것갈지 않다 장사후에 유고나 보고말 것을 고나갈가 한다 (사진은 기자단과 회견하는 광경과 밖으로 나오는 부통령)

감찰위원회에서는 오작일경 교장으로 다음과 같은 조사를 보냈는데 대표하여 검법원일동을 대표하여 영전에서 위원(金法麟)씨가 이를 낭독하였다

오호 백범 선생이시여 일찍 나라를 겨우찾아 어 겨레의 중흥대업(中興大業)을 비롯한 이 마당에 선생이 가시다니 뜻밖의 외세에 국토는 양단되고 민족은 분열되어 조국의 정운(政運)이 아득한 이때에 선생이 가시다니 삶하는 빛을

원고 겨레는 통곡하나이다 五십년의 진인(眞人)이자 의인(義人)이 일찍한 청사에 빛나 오리다 만 산고 수려(高山水麗) 三천리의 장래는 하마 이렇게 되리까 사생(死生)은 부운(浮雲)같으오며 장 부의가는 풍도(風度)은 당현에 철수(鐵首)하야 이몸 지오만 하늘에 사모 친 연원을 다 이루고 가신 이 나이다 오호 선생이시 여 깨치신 뜻 받들어 다 말이 땅에 많으리다 높으 신 자취 밝은 의 뜸은 동 지더욱 마음 마음 다듬 다시 찾고 그리하여 이 땅 다시 찾고 잃은 서 광 빛나는 나라를 만들날 멀지 않아 오리다 오호 선생이시여 편안 히 가소서 대한민국감찰 위원회일동 배곡

國土防衛決意

勞動者農民도蹶起大會

남북 통일하고 국토를 방위하자는 결의 밑에 국민의 입장을 대표하는 노동자 농민총연맹 위원장 전진한(錢鎭漢)씨의 개회사 에 이어 노총 농총연맹 유기태(劉 起兌)씨의 선언 결의문 등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노 동자농민총연맹 위원장 송정(宋正 錦)씨의 축사가 있었다

[illegible] 九일 노동 통일의 회를 통해서 대한(大韓) 대통령 [illegible]

船舶返還問題

美政府와直接交涉

許交通長官談

일본에 끌려간 우리 선박의 반환을 비롯하야 해운력 환원하여 우리나라 해운계 는 부흥에 따라 각방면 으로부터 요청되고 있는 이때 교통부장관 허정(許政)씨는 一일 기자단과 회견석상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번 일본으로 파견한 한국선박 반환교섭위원들이 돌아와 보고하는바에 의하면 우리정부는 一九四五년八월 十五일 당시 우리나라 선적으로 끌려간 배를 전부 반환받을 것을 요구하였는데 미군정에서 해운(海運)에 있어서는 一九四五년九월八일에는 이미 일본인 배라 보았다 「맥아더」사령부는 그렇게 보았다고 하야 서로주장이 맞서게 되었다 그러나 [illegible]

『맥』사령부의 태도가 그러합으로 일행중의 한사람인 김용주(金龍周)씨 가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정부와 이문제에 관하야교섭하기로 되었다 그리고 남한선박은 많다 [illegible]

曺秉相에七年

30日公判에서求刑

지난六월三十일오후반민공판은 오후一시四十분부터 김(金秉憲) 재판장주심 김(金鍾洙) 검찰관입회하에 오경팔(吳景八)에 대한 공판이 개정되었는데 검찰관으로부터 반민법제四조六항위반으로 징역三년의 구형이 있은후 이어 오후二시반부터 조병상(曺秉相)의 공판이 속개되어 사실심리를 끝마치고 검찰관으로부터 반민법 제三조 二항 八항 十항 十一항 위반으로 징역七년의 구형이 있었다

가정권리를 말어가지고 인양할라이다

管財處에「메스」

林總局長等幹部十一名拘禁

이 때까지의 파와 밀으로 이목을 끌었던 관재처에 대한 수위 전 재산에 위한 수사는 앞서부터 일시 관재주 의 서 민중간에 허다한 추태 를 연출하고 있음을 통한 처장 지은 적산재탄을 이용하여 부 자리에 굽굽한 관재처 적 를 원들의 비행도 있다는 이유로 목과 치못한 일이다 그런 데 관재처 총국장이라는자

[illegible] 혐의 사건이 적 발되었다 즉 서울시경찰 국에서는 앞서부터 일시 관 재총국 직원을 간헐적으로 취 조 중이던바 지난二十七일 중 장 부(宋部) 유장순(유) 구 지에서 사실 [illegible] 예의 그 외수사 [illegible] 三十일에는 동총국 임병혁(林炳赫) 동차 장 김희영(金熙榮) 외 동

一日下午公判

작 一일 반민재판은 오전十 一시부터 노(盧鎭卨)재 판장주심서(徐) 검찰 관입회하에 새벽 [illegible] 서경석 三년구형이 끝났던 검동환(金東煥)에 七년 간공민권정지의 一년구형 이었던 송세태(宋世泰)에 一년징역에 二년집행유예 이민호(李敏浩)는 一년 징역五년집행유예에 형을 각 각선도하였다

장 유완창(유완창) 동경 리국장 편석군(片錫俊) 동 서울관재처장 이준근(李 俊根) 씨등 十一명의 관 재처간부들을 구금하 였다 그런데 이들은 관재 재사무를 적리하는 직위에 있 음을 기화로 일반 시민으로 부터 적다로운 관대를 받았다는 것 으로 [illegible]

士遠한바와같이 文字와言 論의暗示로弄絡하여 國民에 合民衆을 衛嚴與奮케한다 [illegible]

序章 (十七)

長篇小說 群像 (17)

朴泰遠 作

金○基 畵

[illegible]

永訣式中止

週末演藝

「國際劇」 [illegible] 「市公館」 [illegible] 「中央劇場」 [illegible] 「首都劇場」 [illegible]

○소학생신문 第三十一號 서울市內大門路一街三六 소학생신문社發行 定價一部二〇圓

東寶化粧品

國産品의 最高峰

東寶化粧品은外來品보담斷然優秀합니다

「東寶」의 技術陣은 이 新製品으로 近代女性에게 또 기쁨을드립니다 端麗하고 氣品있는 그대의모습을 한층 더 燦爛케하십시요。

東寶바니싱그림

바르시면바르시는대로 皮膚가히여지고 榮養이됩니다

東寶스페시알그림

一滴의 香氣가 數日發散

東寶香水

全國有名化粧品藥房에있음

和信●東亞百貨店에서特設販賣中

(類似品注意)